

◆ 消息 ◆

- ★ 大檢察廳 中央搜查部長, 提學公派 慶會氏는 지난 3月11日附로 釜山 地方檢察廳長으로 榮轉하였다.
- ★ 서울市 公務員 教育院 庶務課長, 都評議公派 昌信氏는 지난 3月23日 附로 서울 特別市 地方自治制 準備 擔當官으로 轉補하였다.
- ★ 大韓藥士會 會長, 翼元公派 明燮(譜名·明會)氏는 中央大學校大學院에서 貿易學을 專攻하고 지난 2月에 經營學 博士學位를 取得하였다.
- ★ 證券監督院 檢査役으로서 建國大學校와 祥明女大의 講師로 있는 翼元公派 佐會氏는 建國大學校에서 證券 分析에 관한 研究로 經營學 博士學位를 取得하였다.
- ★ 提學公派 相馨氏는 九旬이 가까움에도 不拘하고 先祖이신 忠武公(諱 時敏)에 대한 史料를 蒐集해서 《忠武公 金時敏 將軍 實紀》를 編纂中에 있다.
- ★ 都評議公派에서는 先祖 松隱先生(諱 光粹)의 書院인 藏待書院(配享: 悔堂 申元祿·梧峰·申之梯·敬亭 李民寔)의 重建工事가 進行中에 있다.
- ★ 翼元公派 部令公 宗中에서는 지난 4月1日(陰 2月15日)에 高敞郡 孔音面 祭廳山에서 部令公 以下 列位의 歲享을 嚴肅히 奉行하였다.
- ★ 翼元公派 文靖公 宗中에서는 文靖公(諱 碩)의 墓碑 豎立을 推進中에 있다. 文靖公은 옛날에 豐碑가 있었으나, 歲久年深하여 字劃이 泯滅되어 今番에 重建하는 것이다.
- ★ 大宗會 理事인 都評議公派 會秀氏는 韓榮貿易(株) 副社長으로서 日本의 去來處의 하나인 코니카 株式會社의 招請으로 一行 6名과 함께 지난 3月28日 出國 4月2日에 歸國하였다.



安東金氏中始祖 忠烈公諱方慶尊影(入則名相)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 明 會
 編輯人 金 崙 會
 印刷人 金 鳳 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營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清涼郵遞局 137號

1988年度定期總會開催公告

一九八八年度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無漏 參席하시기 바라오며, 別途個別 通知는 一切省略 하오니 諒知하시고 隣近宗親과 相互連絡 하셔서 많이 參席하시기 바랍니다.

- 一、日時: 一九八八年 五月五日(어린날) 午前十一時~午後二時까지
- 二、場所: 中浪區 忘憂一洞二〇七-二

龍宮갈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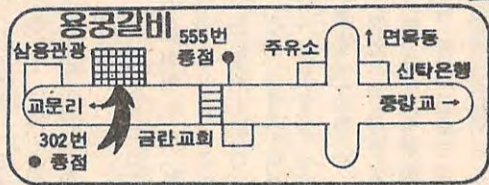
電話: 四九二-〇二二二, 四九三-〇二二二

市内버스便	302	(중점)
	555	(중점)
	522	
	165	
	165-1	
	166	
	166-1	
	55	
	50	

※市内버스 忘憂里 終點下車, 금란教會 맞은편 上鳳洞 市外버스터미널에서 망우리 쪽으로 步行 一〇分거리

- 三、案件: 1. 一九八七年度 決算報告의 件
- 2. 一九八八年度 豫算審議의 件
- 3. 其他事項

- 四、會費: 五千元(通常會費包含) 畫食 및 紀念品 提供
- 一九八八年 四月 十五日
會長 金 明 會 白



(非賣品) 이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是 冊을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敬順大王陵香大祭奉行★
 敬順大王陵香을 다음에 의하여 奉行하오니 多數 參祀 하시기 바랍니다.
 日 時: 一九八八年 五月 九日(음 4:4)
 集合場所: 창신동(구 동덕여고 앞) 오전 9시
 會 費: 1인당 1만원
 新羅汎金氏 大宗會 출발.

*安東金氏正儀公派譜刊行의件
 三陽이 泰回하고 萬花가 芳暢하는 이 때에, 尊體度 萬重하시며 高堂의 萬福을 祈願합니다. 就告 우리 正儀公派譜는 一九二八年(戊辰)에 城津에서 出版 全十卷을 刊行하였고, 一九七九年(己未) 大同譜에는 越南族親만이 收錄되었으나, 當時에 漏落된 분이 許多할 뿐 아니라, 十年 동안에 出生·嫁娶·昇進等 여러가지 變動事項이 많음으로 宗論에 따라 正儀公派譜를 다음에 依하여 刊行코자 하오니 다음 事項을 參考하시고 無漏 參與 하시기 仰望합니다.

- 一、本派에서 派遣한 收單委員에게 提出할것.
 - 一、收單提出: 本派에서 派遣한 收單委員에게 提出할것.
 - 一、收單委員: 大宗會 理事 金時默(一名 順宇)
 - 一、서울連絡所: 서울 東大門區 徽慶洞 一一二
- 安東金氏大宗會
 電話: 二四四-三七一七
 一九八八年 四月 十五日
 安東金氏正儀公派宗會長 金 松 默 白 (一名 一光)

※惡德商人의 欺詐行爲에 對한 警告
 近來에 宗親들의 電話番號나 住所等을 探索해서 大宗會 事務長이라 云云하면서 書籍을 비롯해서 各種物品을 強賣하는 惡德者가 있어 宗親들이 被害를 입고 있는 事實이 있어 오니 各宗親께서는 이에 眩惑되지 마시기 바라오며 또 이 들은 우리 安東金氏만이 아니라, 慶州·延安·金寧 그 밖의 宗中을 팔아서 〇〇大宗會의 任員이라 하고 甚之於各大宗會의 任員과 位置等을 正確히 대고 있으니 우리 宗親만 아니라 모든 金氏에게 周知徹底를 期하시어 이러한 被害를 防止할 수 있도록 各自 留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九八八年 四月 十五日
 安東金氏大宗會

/특/별/기/고/

청소년을 위한 강연내용

인간교육 연구원 원장 金道振 (서울북악중학교에서) (按廉使公派)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와 달리 특별히 경노효친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여 준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부터 존경하고 기뻐하는 바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경노효친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 경노효친 사상에 대한 공부 아주 시급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형제 모두가 8.15 해방후 40년간 주로 미국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윤리와 도덕인 경노효친 사상을 차츰 잊어버리고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아주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예로써,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학교 교사가 사랑해야 할 제자를 암매장하고 자기처를 또는 남편을 아버지를 살해하여 보형금을 타 내려고 대학총장실에 방화하는등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혼란은 우리나라 전통 윤리도덕을 잊어 버리고 서구식, 나만을 아는 개인주의와 물질위주의 사상의 좋고 나쁜점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조사해본 결과 부모가 늙으면 양노원으로 보내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흔한 예이지만 최근에는 노부모를 양노원으로 부터 다시 모시는 가정이 1960년대 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약60만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작년 8월경 일본에 있는 쓰구바 대학에서 세계적인 철학자 우리나라 퇴계선생의 사상발표회가 있었는데 공산군가를 비롯한 서구 160여개국에서 20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든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통 윤리사상을 배우려고 세계각국에서 몰려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85년 초에 한국을 방문한 서독제일방송국 제작국장 피터크 램씨도 서구선진국의 나만을 알고 물질만 대단하게 아는 소위 물질위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벽에 부딪혀 이제는 한국의 전통 정신 문화 즉 위에 말한 경노효친 사상을 배워야 하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 올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UCLA 대학에서 우리의 한국 사람이 주로 우리 한국학만을 강의 하시는 교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수학생 할것 없이 우리 한국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 한국에 와서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한국정신을 연구하는 교수 학생들과, 미국에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 교수 학생들을 교환하려 하는 대대적인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일주일간 머무르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지식인들의 상류층 사람은 우리 한국의 경노효친 사상이 자기네들 물질 위주의 개인주의 사상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경노효친 사상이 우수하다 하여 배우려고 하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죠?

동물과 다르죠?
이것을 만물의 영장이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 동물과 다른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동물과 다른지 말해 보실분 손드십시요?

서구선진국 사람들의 사상은 부모보다나 회사보다 나, 나라보다 내가 먼저라는 개인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부모가 늙으면 내가 즐겁게 사는데 거처장스러우니까 양노원으로 보냅니다.

그 사회에서는 65세가 넘으면 정부에서 먹고 살고 지내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생활비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노원에서 아들, 딸 손자가 없는 쓸쓸한 생활을 하다보니 고독감에 못이겨 자살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대가족제도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면 먹고 사는것 뿐 아니라 자식 잘되는줄 거움 손자 잘 되는 보람 등으로 늙은 나날을 보낼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노효친 사상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처럼 노후에 생활비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늙고 몸이 약해지고 경제력이 없고 자식이 돌보지 않으면 미국의 노인문제보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윤리인 경노효친 사상이 있기에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보다 우리의 전통윤리사상이 우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은 부모에게 보답함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노부모를 당연히 봉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아십니까?

단장이란 뜻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뱃사공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

이를 잃은 까닭에 새끼를 따라 물기를 따라 울며불며 강변을 내려가다가 마침내는 죽어 버렸읍니다.

그 뱃사공이 어미 원숭이를 해부해 보니 창자가 끊어졌더라고요.

이때부터 애절한 슬픔에 표현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했읍니다.

이 원숭이 이외의 동물이 자식 사랑하는 예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동물의 예는 아직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다 아는 일이지만 어느 시골 아버지와 아들이 추운겨울에 이웃 마을로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잠자는 아버지를 그의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 덮어 주고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 놓고 자신은 추위에 못이겨 얼어 죽었다는 예등 얼마든지 효자 효녀 효부의 예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효도 방법,

내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눈으로 직접본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Yellowstone 이라는 곳을 갔을 때에 일입니다.

그곳은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으로 덮여 있고 섭씨 7°C 나 되는 뜨거운 물줄기가 60m의 높이로 정확한 시간에 치솟는 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없는 온천수, 이것을 Falth full 이라 합니다.

또한 수백만명의 사람의 모양으로 노란색 천연조각품이 계곡 전체를 메우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야생동물인 곰·사슴·다람쥐 등이 도망가는 커녕 사람을 따르고 먹을 것을 주면 잘 받아 먹는 광경은 감짜기 자연과 동물을 사랑한다 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끊임없이 잡지 않고 쫓지않고 사랑하는 까닭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효도도 말로만 효도 할것이 아니라 작은일에서 부터 몸소 실천할수 있는 길을 찾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에 물건으로 선물하여 효도했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평소에는 부모의 뜻을 거슬리고 기분을 불쾌하게 해 드리고 물질인 선물로만 효도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일상 생활속에서 또한 작은 일에서 부터 효도 할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늘 사용하는 용어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인사가 젊은이들에게무의식 중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면 안타깝게 여겨질뿐 아니라 하루 빨리 바로 잡아 질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애인도 사랑합니다 라는 용어는 그 구별이 분명히 있어 어머니는 존경이라는 협의의 사랑과 애인에게는 광의의 사랑과 협의의 사랑과 남에게 하는 사랑으로 구분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부모의 교훈이나 선생님의 충고가 실사 흥분된 상태에서 혹은 억양이 높다 하더라도 조용히 경청한 다음에 자기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을 몸에 익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대답 한다거나 큰소리로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부모 곁에 있으면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불안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걱정을 덜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여름에 미주 동아일보 초청으로 교포 청소년을 위해 강연회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곳 미국 생활을 접하다 보니 여러모로 느낀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내가 교포청소년을 위해 강연회를 가는 길에 BUS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정거장에서 정거한 다음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무엇인가 덜거덕 덜

거덕 소리를 내면서 운전사는 왔다 갔다 하기에 무슨 사건이 난 줄 알고 자세히 보았더니 10분후에 휠체어를 탄 신체부자유의 여자 손님이 싱글방글 웃으면서 차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키나 팔다리가 7~8세 정도밖에 안되 보였으나 그녀는 승객들과 눈만 맞으치면 파안대소 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속에서 나는 그녀의 나이가 35 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자를 돕기 위해 수십명의 승객들이 아무 짜증도 내지 않고 태연히 기다리는 것이나 버스 구조 자체가 신체부자유자를 태울수 있게끔 되어 있다든가 7~8세 정도밖에 안되어 보이는 35세의 중년 부인이 본인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도 열등시 하지 않고 맞상대하여 대화 하는 광경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고 인간을 존엄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몸소 실천하는 예라 하겠다.

우리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경노효친 사상이 있기에 약자인 노인을 돕고 뒷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생활 할수 있다는 것이우리 나라 미덕이요, 훌륭한 사상을 지닌 우리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하겠다.

어느 장소를 불구하고 나 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자리를 양보하거나 무거운 짐을 거드려 드리거나 기타 불편한 점을 도와 드리는 것은 우리 젊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분들이 지어 놓은 안락한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수 있고 학교를 지어 놓았기에 그곳에서 마음 놓고 공부 할수 있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놓았기에 생활하는데 불편없이 지내고 있으니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 행동 하기에 힘드시고 능력이 이제는 없기에 젊은 우리들이 힘껏 도와 드려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효도 경노 할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부터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으로 부터 경노효친 사상이 우리나라와야 되겠습니다.

(2면에서 계속)
무리한(無賴漢) 이 난을 꾸미
미고져 할 때, 혼(所)이 인
후와 더불어 능히 면저 일고,
난을 진정하였으니 그 공은
가상하여 특히 서용(叙用) 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해(一三〇九..己酉)
七월에 서거하니 향년이 五十
九세였다.
공은 그 성품이 활달하고 인
자 하였으며, 친척의 궁한 자
를 구휼하였다.
그러나 공에게는 후사가 없어
그 장한 업적이 그늘에 가려져
있다.

(元榮記)

한국인환은행

잔액	기호및점역
****18,197,7855	
****8,197,785*0A055	02055
****8,997,785*04055	
***9,409,244*	B131
***9,419,244*	02131
	02055
***10,769,244*	04055

不動產明細

(財產目錄) 地地建物位土林野

地目	所在地	地番	坪數	用途	名義	備考
空地	外營東大門已徵慶洞112-49		112坪	會館空地	安東金氏宗親公大會	1978.9.16 登記
建物	"		301坪	會館	"	"
空地	外營成東馬路洞566-36		20坪	空地	代表金壽五	1972.6.26
"	廣北榮東路孫林面竹松洞330-2		438坪	空地	安東金氏宗親公大會	1971.1.18
"	"		135坪 (446m ²)	空地	安東金氏宗親公大會	登記
"	"		84坪 (278m ²)	空地	代表金壽五	登記
"	"		666坪 (2188m ²)	空地	"	"
"	"		665坪 (2187m ²)	空地	"	"
林野	"		321坪	神主塚地	安東金氏宗親公大會	登記
田	"		740坪	田	"	"
"	"		754坪	"	"	"
"	"		253坪	"	"	"
"	"		257坪	"	"	"
"	"		84坪	"	"	"
田	"		79坪	"	"	"
"	"		85坪	"	"	"
田	"		576坪	"	"	"
田	"		577坪	"	"	"
"	"		724坪	"	"	"
"	"		727坪	"	"	"
田	"		729坪	"	"	"
林野	"		729坪	"	"	"
"	"		山 23	"	"	"
"	"		山 154	"	"	"

財產明細

安東金氏大宗會

豫金殘高明細書

※ 미기재 이자는 83.3.31 현재 통장에 기재되지 않은이자

순번	구분	종별	잔 고	미기재이자	거래은행
1	일반	자유저축	10,769,244		한국의환은행
2	"	거치식	10,000,000	86,032	한국투자신탁
3	"	"	30,000,000	3,304,725	"
4	"	자유저축	6,455,782	18,632	"
		계	57,225,026	3,409,389	
5	특별	자유저축	7,771,331		한국투자신탁
		계	7,771,331		
6	장학	거치식	15,000,000	1,593,521	한국투자신탁
7	"	"	6,377,251	206,403	"
		계	21,377,251	1,799,924	"
		총계	86,373,608	5,209,313	

() 밑에서 이원

평가금액

만기일 89. 2.26

THANK YOU

42 *10,000,000

손님께

항상 저희 한국투자신탁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축계산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통장과 신고된 인감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으며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특히 통장과 인감을 같이 분실하였을 때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신탁 약관과 뒷면의 수익증권저축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자성물건(TV, 라디오, 자석) 위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은 표지까지 4매)

⑥ (영A-70, 139.7×174.6%)

③ 손님께

항상 저희 한국투자신탁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축계산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통장과 신고된 인감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으며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특히 통장과 인감을 같이 분실하였을 때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신탁 약관과 뒷면의 수익증권저축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자성물건(TV, 라디오, 자석) 위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은 표지까지 4매)

(영A-70, 139.7×174.6%)

청량리지점 292466

계좌번호	26-12-50627-0	종 목	장기공사채2호
성 명	안동권대통령 김명희	주민등록번호	230408-1047812
좌수:	*14,205,084	좌 확 인	
(금:	*15,000,000 원정)	저축기간	/ 년 월
만 기 일	1988년 2. 7 일	이익분배금	재 투 자

청량리지점 292430

계좌번호	26-09-55634-1	종 목	장기(가)
성 명	안동권대통령 김명희	주민등록번호	230408-1047812
좌수:	*28,567,892	좌 확 인	
(금:	*30,000,000 원정)	저축기간	/ 년 월
만 기 일	1988년 3. 월 11 일	이익분배금	재 투 자

저희 회사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위와같이 약정합니다.

한국투자신탁 1987년 02월 10일

청량리지점 지점장대리 박재환

07.3.27 15.1.20 510

저희 회사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위와같이 약정합니다.

한국투자신탁 1987년 03월 1일

지점장대리 송경숙

수익증권저축내역 ④

일 자 취급점·기호	납입금액 납입좌수	반환금액 반환좌수	수수료 매매기준가	평가금액 잔고좌수
870609 26 I	*374,234 *374,234	채투자	1,000.00	*4,311,208 *4,311,208
871117 26 W		*780,000 *751,618	*0 1,037.76	*3,694,001 *3,559,590
880226 26 D	*950,000 *894,126		1,062.49	*4,732,029 *4,453,716
880304 26 D	*1,000,000 *939,682		1,064.19	*5,739,601 *5,393,398
880316 26 C	*700,000 *655,929		1,067.19	*6,455,782 *6,049,327

①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

적요	지급금액	예입금액
계좌번호 131-19-07607-7		이월
02 88.02.26M 對替	*10,000,000	
03 88.03.04M		*500,000
04 88.03.04M 保手		*300,000
05 88.03.28A 利子	88.03.28 131	*411,459
06 88.03.28A		*10,000
07 88.03.31H		*550,000
08 88.03.31H 保手		*800,000

⑤ 수익증권저축내역

일 자 취급점·기호	납입금액 납입좌수	반환금액 반환좌수	수수료 매매기준가	평가금액 잔고좌수
880224 26		새발급		*7,652,882 *7,206,171
880224 26 W		*15,000 *14,124	1,061.99	*7,637,882 *7,192,047
880316 26 D	*20,000 *18,741		1,067.19	*7,695,281 *7,210,788
880328 26 D	*28,628 *26,749		1,070.27	*7,746,119 *7,237,537
880331 26 D	*20,000 *18,675		1,070.99	*7,771,331 *7,256,212

②

종목: 장(9)

년월일	취급점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고좌수(금액)
880226	26 C		*10,000,000	*9,559,000

저축(목표)금액 *10,000,000 저축기간 1년
계좌번호: 26-09-57118-3 JA

會館內各店舖賃貸料明細書

(1987. 4. 1)
(1988. 3. 31)

종별	임대점포명	평수	보증금	임대료	부가가치세	임대료합계
지하실	한국제책사 김금봉	63평	2,500,000	510,000	51,000	561,000원
1층	맥주집 박준영	13"	2,500,000	182,000	18,200	200,200"
1"	프랑스제과 김태근	10"	2,000,000	182,000	18,200	200,000"
1"	증량약국 원종구	10"	2,000,000	182,000	18,200 24,200	200,200"
1"	안동상회 김재현	15"	2,500,000	242,000	28,000 24,200	266,200"
1"	금융식당 이의권	16"	4,000,000	280,000	28,000 34,000	308,000"
2"	안동다방 강선자	30"	5,000,000	340,000	34,000 12,000	374,000"
2"	한국화재협회	12"	1,500,000	130,000 130,000	13,000 12,200	143,000"
2"	삼양상사 이승수	13"	2,000,000	172,000	17,200	189,200"
3"	만화소설 지정자	30"	4,000,000	250,000	25,000	275,000"
3"	유니화우스 김배곤	30"	4,000,000	250,000	25,000	275,000"
			32,000,000	2,720,000	272,000	2,99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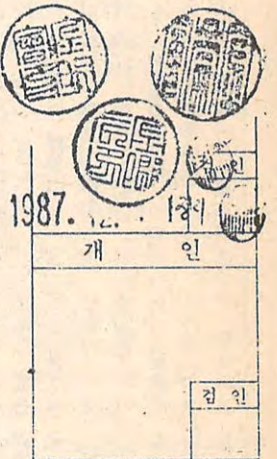
賃貸料缺損狀況

(賃借者出·入住로 인한 空白)

號數	明渡에서 入住까지	空白日數	缺損額
301	4月19日~5月31日	42日	350,080원
302	4月19日~5月7日	18日	150,120원
302	7月21日~8月21日	31日	250,000원
202	5月8日~6月31日	52日	230,000원
	計		980,200원

⑦ 손님께

항상 저희 한국투자신탁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축재산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통장과 신고된 인감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으며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특히 통장과 인감을 같이 분실하였을 때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신탁 약관과 뒷면의 수익증권저축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자성물건(TV, 라디오, 자석) 위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은 표지까지 4매)

(영A-70, 139.7×174.6%)

청량리지점

318617

계좌번호	26-12-50868-7	종목	장
성명	김승희	주민등록번호	23-249-1047512
좌수	*6,166,779	좌화인	
(금)	*6,377,251 원	저축기간	총년 x 월
만기일	년 월 일	이익분배	채투자

저희 회사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위와같이 약정합니다.

한국투자신탁 1987년 12월 05일



청량리지점 동정
김승희

宗門의 現場

全北 高敞郡 孔音面 翼元公派部令公門中編

高敞郡 孔音面은 全羅北道의 最西南端에 位置한 邊僻의 地方이다.

서울 江南 터미널을 출발한 井州行 버스는 京釜高速公路로 進入 大田에서 갈라진 湖南路 線을 타고 시원스럽게 달리기 三時間 남짓하면 井邑에서 昇 格한 井州市에 到着하고, 여기 서 다시 靈光行 버스로 高敞邑 을 經由, 大田에서 下車하면 孔音面까지는 4km의 거리라, 時間 맞춰 通行하는 市内 버스 도 있지만 택시의 往來도 빈번 한 非鋪裝道路가 한창인 포장 공사 때문에 아직은 交通에 支 障이 될 뿐이다.

小白山脈에서 分岐된 露巖山 脈이 점잖은 姿勢로 西南方을 向하면서 全州의 雄府를 감돌 아 湖南의 大平原을 조심스런 게 돌아 오다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우뚝 솟은 傑作은 內藏山의 絶景이요, 高敞의 宗 山이며 方丈山의 巒秀는 鎮山 이라. 줄기는 南·北道의 境界 가 되고 西海 巨瀨하루리를 감 주니 孔音面에서 바다(法聖浦) 까지 는 一〇km의 거리에 不過 하다.

지금은 行政區域上 高敞郡에 속해 있지만 본래는 茂長郡이 니, 茂長은 茂松縣과 長沙縣을 合併한 名稱이며, 瓦孔面과 冬 首峙面을 合併해서 孔音面이 되 었다는 古記의 說明을 듣고 보니 行政上의 哀患도 스스로 느껴진다.

이러한 곳에 安東金氏가 始 居하기는 五百의 年輪을 거슬 러 올라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李朝의 開國元勳이신 翼元公 의 玄孫인 通贊公(諱 乙萬... 四五八·一五二五)은 中宗朝에 蔭仕로 通禮院 贊儀(正五品職) 로 있으면서 自身에게 미칠 禍 를 피하여 이곳에 定着 隱居하 므로서 茂長의 安東金氏 五百 年의 歷史가 시작된다.

그때 希樂堂 金安老(延安人) 은 일찌기 文科에 及第하여 副 提學·大司憲 등의 要職에 올 랐고, 아들이 孝惠公主와 婚姻 을 하고 부더 權利를 濫用하고

政敵을 造成하므로 通贊公은 領 議政 南 資과 大司憲 李 沆을 罷 逐하여 金安老의 除去를 祈하고 이를 上疏하므로 해서 金安老 는 豊德으로 流配되었다.

그러나 後日에 南 資가 失脚 되고 金安老가 再登用되자 앞 으로 다칠 被禍를 豫知하고 西 海岸으로 脫出, 南下하여 子孫 扶植의 地전으로 잡아 世居地 가 되었다.

그후에 金安老는 專橫無道 한 行動으로 政敵을 肅清하였 고 심지어는 王族까지도 逐出 하고 마침내는 文定王后의 廢 妃를 祈하다가 密令을 받은 尹 安任·梁淵等에게 毒을 받아 殺 害되었는데, 蔡無擇·許 沆과 함께 丁酉三兇이라는 史錄에 汚 點을 남겼다.

한편으로 이곳에는 通贊公 은 學問의 探究에만 熱中하였 고 아들 福重은 다시 通禮院 贊 儀를 지냈고 그의 아들 永慕堂 諱(諱)은 出天之孝로 이 門中 을 빛낸 顯祖이다.

永慕堂께서는 어린 시절 부터 孝심이 지극하였으므로, 二十八 歲에 外艱喪을 당하여 居廬의 生 活을 보내고 祥期를 마치자 또 祖父의 상고와 祖母의 상고를 當하여 九年間의 侍養을 마치 니 四十의 고개에 다달았고 그 때부터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孝誠은 하늘에 感應되어 여러가지 異蹟이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는 文蹟으로 남아 있 고 或은 傳說이 되고 있다. (本 會報 第七號 六面 永慕堂 孝行 記) 參照)

이러한 일이 있은 후로 사람 들은 公이 여막을 짓고 居廬사 리를 하던 곳을 祭廳山이라 불 러고 河西 金麟厚 先生은 公의 居室에 堂號를 붙혀 永慕堂이 라 하였다.

舊基에 道嚴祠를 創建하여, 烈行을 兼遂한 事實이 邑誌나 烈傳의 기록에 나타나 있으며, 或은 褒賞의 對象이 되기도 하 였다.

筆者가 孔音을 尋訪하기는 三月 三十一日이었다. 面所在地인 七岩里는 二百餘 戶나 되어 보이며, 新築된 二 層洋屋과 깨끗한 거리, 小邑 의 風景을 자아내고 宗親의 고 장이라 생각하니 어딘가 모르 게 마음 든든한 느낌이다.

永慕堂의 孫子인 參議公(諱 常)은 壬辰倭亂 때, 倡義한 戰 功으로 工曹參議에 追贈되었고 아들 隱松堂 諱(諱)은 十年 母病에 禱天得効하고 親喪에 六 年間을 侍養하니 朝廷에서 復 宗親會館이란 橫書의 看板이 戶가 내렸으나, 이를 사양하였 고 丁酉年 倭亂에 倡義하여 靈 光의 賊을 擊逐하였으며 李适 의 逆亂에는 召募 義學하여 王 師를 도운 功勞로 南原教授를 除授하였으나, 나가지 아니 하 였다. 그래서 後日에 士林은 다 시 朝廷에 進言하여 一八四七 年(憲宗 13·丁未)에 道嚴祠에 追配하였다.

松圃公(諱 弘哲)은 隱松堂의 아우이다. 武科 奉事로서 李适 의 亂에 伯兄을 따라 城을 固 守하고 또 丙子胡亂에 倡義하 여 武功을 세웠고, 賢武齋(諱 益 哲)은 直長으로 壬辰倭亂 때, 宣祖께서 義州로 播遷할 때 扈 從하여 八十里를 업어 드린 功 勞가 있어 主簿로 陞進되고 宣 武原從功臣 一等으로 策錄되고 錄券이 下賜되어, 道嚴祠에 配 享되고 錄券은 奉安閣에 保存 되고 있다.

그밖에 또 孝子나 孝婦로서 或은 褒賞되고 或은 鄉誌에 修 録된 분이 許多하니 益行·兌瑞 昌白·昌碩은 三代가 함께 特 殊한 孝行이 있었고, 敬時默· 在植·昌會 등의 克盡한 孝行은 모두 邑誌의 記錄으로 남아 있 음이다.

그리고 保存에 대하여 一言 을 加한다면, 補修의 疎忽을 直 感하게 된다. 비록 縣板이 한 조각 木片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出天之孝라 崇高한 人倫大道의 表像이요, 萬里長程 因과 不遇한 처지에서 孝道와

에 正성을 담아 내린 天子의 親 筆이 우리나라 안에 어디 또 있 단 말인가? 이는 분명히 子孫 의 자량이요, 社會의 側面에서 도 寶物로 取扱함이 妥當할 것 인즉, 後孫은 勿論이거니와 地 方有志로 하여금 當局에 陳情 해서 文化財로 指定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함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祭廳山은 道嚴祠에서 멀지 않 은 곳이었다.

祭廳山의 壁域은 野山地帶라 서 넓고 平坦한데 上位에 部令 公(諱 宗漢)과 佐郎公(諱 貴德 은 落南後로 墓所가 失傳되어 設壇奉享하고 通贊公 以下 列 位의 墳墓가 整然하게 瞻掃되 어 行路의 指點이 되며, 北向 (丙坐)의 山麓이나 終日도록 햇 빛이 쬐기지 않는 名堂이었다. 가던 다음 날이 바로 祭廳山 歲享의 날이라 墓下의 齋室에 는 老少間 四十餘名의 後孫들 이 모여서 祭需準備과 行事에 대한 公論을 펴고 있었다. 소설 대문과 넓은 뜰, 五楹瓦柱를 前 面에 받치지는 齋室과 講堂은 近代木造建築物는 一品의 傑作 이라 할 수 있다.

祭享의 行事는 다음날 十時 부터 始作되어 約二時間동안 精 深한 祭需로 嚴肅히 舉行되었 고, 이어서 總會를 開催하여 去 年度 決算報告에 이어 本年度 豫算案을 審議可決하였는데 野 山을 開墾한 九萬餘坪의 田畵 의 賃借料 收入과 그밖에 各種 收入은 年間 二千萬圓에 가가 으며, 그 執行은 會長團이 合 議한 指示에 따라 總務 三郎氏 의 周到綿密한 計劃으로 推進 되고 있어 族親의 信任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宗中도 어느 農村 과 마찬가지로 墾墾된 人口에 밀려 많은 사람들이 都市로 進 出하고 或은 隣近面으로 散在 하고 있으니 七岩, 甲村, 扇洞 等地에 一五〇餘戶가 孔音面의 舊基를 지키면서 爲先事業과 門 族의 親睦에 盡力하고 있으며, 그밖에 高敞郡內에 五〇餘戶 가 散在하고 있는데 特히 高敞

에 正성을 담아 내린 天子의 親 筆이 우리나라 안에 어디 또 있 단 말인가? 이는 분명히 子孫 의 자량이요, 社會의 側面에서 도 寶物로 取扱함이 妥當할 것 인즉, 後孫은 勿論이거니와 地 方有志로 하여금 當局에 陳情 해서 文化財로 指定될 수 있는 길을 열게 함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祭廳山의 壁域은 野山地帶라 서 넓고 平坦한데 上位에 部令 公(諱 宗漢)과 佐郎公(諱 貴德 은 落南後로 墓所가 失傳되어 設壇奉享하고 通贊公 以下 列 位의 墳墓가 整然하게 瞻掃되 어 行路의 指點이 되며, 北向 (丙坐)의 山麓이나 終日도록 햇 빛이 쬐기지 않는 名堂이었다. 가던 다음 날이 바로 祭廳山 歲享의 날이라 墓下의 齋室에 는 老少間 四十餘名의 後孫들 이 모여서 祭需準備과 行事에 대한 公論을 펴고 있었다. 소설 대문과 넓은 뜰, 五楹瓦柱를 前 面에 받치지는 齋室과 講堂은 近代木造建築物는 一品의 傑作 이라 할 수 있다.

贊助金名單

五萬圓	翼元公派	煥	(文來洞)
參萬圓	都評議公派	秀	(加里峰洞)
貳萬五千元	提學公派	堂	(三陟)
貳萬圓	提學公派	相	(南加佐洞)
貳萬圓	忠州市	泰	(中原郡宗親會)
壹萬圓	翼元公派	珍	(墨洞)
壹萬圓	按廉使公派	會	(清州)
壹萬圓	翼元公派	聲	(永洞)
壹萬圓	翼元公派	永	(鳳洞)
壹萬圓	翼元公派	在	(果川)
壹萬圓	翼元公派	亨	(京洞)
壹萬圓	翼元公派	希	(石串洞)
壹萬圓	都評議公派	會	(咸陽)
壹萬圓	都評議公派	杭	(大邱)
壹萬圓	都評議公派	在	(憲岐)
壹萬圓	翼元公派	英	(會餘)
壹萬圓	翼元公派	潤	(唐津)

忠州市·中原郡宗親會

- 顧問 榮俊·璣會·泰碩
- 會長 東應
- 副會長 泰喆·泰鳳
- 總務 在河
- 理事 敬源·龍默·在福
- 理事 在洪·在聲·昌會
- 萬會·正英·南應
- 樂應·昇會·與會
- 奎燮·哲秀
- 監事 容默·在環

邑道山里에는 翼元公의 宗孫 人辰會氏가 不桃廟의 祠官사 (당)를 맡고 있고, 廟室에는 影幀을 奉安하고 있다. 近世에 와서 著名한 本으로 는 아무래도 義兵將公(諱 在華) 을 들지 않을 수 없다. (7면에 계속)



隨 聞 隨 錄

서울 城東區 紫陽洞 翼元公派 在 冕

第一章 分 수

* 허세와 분수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아는체」 「잘난체」 「없어도 있는체」 하는 허세가 알게 모르게 의식을 좀먹어 왔다. 그래야만 남이 알아주고 사람 대접도 받는다는 뼈뿔어진 심리들이다.

60년대 이후 경제적 팽창이 진행되면서 일부 특혜와 투기에 편승하여 축적이 가능했던 축과,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껴야 했던 축으로 격차가 심화 되면서 이같은 풍조는 더욱 만연했다. 특히 일부 신흥 부유층의 무분별하고 도에 넘치는 과소비와 호화 사치는 서민층의 자기 과시욕까지 자극, 곳곳에 황새와 뱀새의 우화를 낳았다. 몇해전의 호화분묘 사건이 그렇고, 이태리의 고급가구 밀수 사건도 그중의 하나이며, 관공상제의 사례에 이르면 과소비 사례는 점입가경을 이룬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협상이 막바지 고비에 이르렀던 1947년 4월 영국의 마지막 인도 총독이던 루이스 마운드 배튼경이 마하트마 간디 수상을 뉴델리의 총독 관저로 초대했다.

도리라는 고유 의상을 입은 만나체의 모습으로 초라한 붓짐까지 들고 총독 관저에 나타난 간디 수상을 보고 총독을 비롯한 영국 관리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성찬의 점심을 마다하고 붓짐속에 싸 들고온 염소 젓과 레몬 스프를 꺼내 마시면서 간디 수상은 태연자약하게 말문을 열었다.

「나는 우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별거벗은듯 하지만 이 도티옷은 우리 선조들이 5천년 동안 입어온 것입니다. 독립을 목전에 둔 우리 인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의 직분을 지키는 마음 가짐입니다. 생각은 크게 생활은 작게라고 내 스스로 사람들에게 일러 왔습니다.」

절대 진리를 추구하면서 검소한 생활로 평생을 일관해온 간디 수상의 이 엄숙한 모습을 보고 마운드 배튼경은 감탄하고 후일 인도의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술회했다. 체면과 하찮은 현시욕 때문에 자기 분수를 잊은채 과분수 현상이 풍미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간디의 이 일화가 투사하는 의미는 자못 크다 하겠다.

* 각성하자 허영과 사치의의식

허영과 사치는 속이 비었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병리 현상이다. 없는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집을 장식하고 몸 치장을 하고 학력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병의 징후들이다.

그래서 남들은 측은하게 환자 취급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눈치도 모르고 사치의 날개를 펴고 허영의 무지개를 쫓는다. 이병은 마음의 병이므로 누가 말을 하거나 걸로 말려서 고칠 수는 없다. 오직 스스로가 깨달아 자기를 내면적으로 키워 나가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길 밖에 치료방법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산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가르치고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게하여, 착실한 자기 성장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밖에 벌지 못하는 남편에게 열을 강요하면 열등감에 빠져 자포자기 하거나 도둑질 하는 수 밖에 없다. 그결과는 뻔하다.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참고 뜨거운 중동 현장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돈으로 아내는 분수에 넘친 「계」를 하거나 놀이판에 들어 돈도없고 가정도 깨어졌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분수를 잃은 허영병이다.

자기수입에 넘치는 큰 집을 가지고 요란한 장식을 하는 이 시위적 행위들, 롤렉스가 결혼을 하는지 사람이 결혼을 하는지 모를 이 서글픈 사실들.

외국 상표가 붙은 물건이면 분별없이 좋아하는 심리들, 무엇이 우리를 이처럼 큰 병에 걸리게 했을까?

이처럼 우리를 진실로부터 외면하게 하고, 바른 것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한 그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좀더 차분히 자기를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마음의 양식도 쌓아가야겠다. 내 힘에 맞는 일에 검소한 마음으로 충실하는 아름다움을 가꾸어가야겠다. 내가 내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갈때 무엇보다 내 개인이 행복해지며 함께 주위도 밝아진다.

내 힘에 겨운 자리에서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때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거뿔되며 불행해지고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사회 모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두워 진다.

분수에 맞는 생활은 즐거움과 의욕을 갖게해서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밝게 한다.

그러나 허영된 생각 허영된 생활은 나를 지치게 하고 거짓되게 해서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고 사회를 파괴한다.

밝고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바른 자기인식, 내면으로의 자기발전에 충실을 기할때 이루어 진다는 생각으로 우리들 의식을 일깨워 가야겠다.

* 양심을 가지고 분수에 맞도록

대장부의 마음 가짐은 마땅히 화창한 바람과 비가 온 뒤의 맑은 달과 같이 상쾌하고 깨끗하여 조금도 거칠거나 가리는 것이 없어야 할것이다.

무릇 하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나 남을 부끄러워 하는 일을 칼로 끊은듯이 범하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에는 큰 기운이 나게 될것이다.

그리고 양심적인 말은 백마디의 말을 다 믿게 하다가도 한마디 말을 우연히 거짓되게 하면 오히려 이는 귀신의 무리와 같은 것으로 싫어하게 되니 절대로 조심할것이다.

분수에는 하늘이 정한 분수와 사람이 정한 분수가 있다. 사람이 오래살고 일찍 죽고 빈궁하고 영달하고 죽고 살고 성하고 쇠망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분수이고,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 어질고 어리석고 강하고 약한것은 사람이 정한 분수다.

낮은 신분으로 높은 사람에게 항거하면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 되고, 천한 신분으로 귀한 사람을 끌어 잡으면 상스럽지 못한 행동이 되고, 어리석으면서 강한 사람을 자처하면 사나운 행동이 된다.

물의 근원은 본래 맑은데 끝의 흐름이 흐려지는 것으로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한데 도리어 착하지 않게되는 까닭은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천리(天理)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6면에서 계속) 一九〇五年에 日本의 強壓은 마침내 乙巳條約이 一方的條件으로締結되자 이에 분결하여 義兵을 모집하고 스스로 將이 되어 高敞·茂長·井邑·扶安等 列邑의 賊과 數十次나 交戰하여 그 義聲이 높았으나 마침내 戰死하여 그 功績을 기리 남기기위해 高敞郡民의 發議로 義舉碑가 세워져 있고, 恒齋公(諱 純默)과 晦泉公(諱 在鍾)은 文學이 著世할 뿐 아니라, 物心兩面으로 寄與한 崇祖의 思想은 祭廳山 밑에 세워진 誠孝紀念碑가 말하고 있었다. 또 普亭(諱 理會)先生은 稀代の 漢學者요 書道人으로 名聲을 京鄕에 떨쳤으며 文集 一〇券이 刊行되었다. 그밖에도 前高敞邑長 在局氏 前孔首 面長 彩會氏·前上下面 長 日會氏·現農協組合長 明會氏를 비롯해서 抱川의 一東中 央病院長 亨會博士·長安泌尿器 科院長 晶洙博士·井邑整形外科 院長 明植博士 등은 仁術로 著名하며, 教育界에는 庸洙(中學 校長·在豐(國)校長)·元會(國)校長)·永植(慶熙大教授·午會(在美教授)·環植(圓光大教授) 등이 있고, 桂會·慶會·丙洙·正洙 元植·洙吉·昇會·泰喆·東植 등은 高等學校 教師이다. 또 實業家로서(株)한선물산 代表理事 商會(株)일석종합건설 代表理事 炯萬氏 등이 있고, 洪會(宗會長)·洙栢(商業·恒植(高)校庶務課長)은 모두 大宗會理事이다. 그리고 公務員이나 會社의 幹部들이 許多하지만 紙面關係로 列記치 못하며, 끝으로 陵洞의 忠烈公 影頓閣에 揭示한 風竹圖는 哲洙 君의 大賞作 品이다. 祭廳山 齋舍에서 總會의 光景을 傍聽하고, 아쉬운情을 심어 둔체, 會長團의 餞送을 받으며, 孔首까지 나오니, 여기서 만난 洙煥氏는 車를 貸切하고 高敞까지 二四km의 거리를 함께 와서 서울행 버스를 태워 주 厚誼는 宗親의 情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元榮 記)

協進開發 代表 翼元公派 金英會 서울 江南區 驛三洞 七三八一 二九 협진빌딩 四〇一號	의원공파 김홍기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七六二	典書公派 金在憲	都事公派 扶餘郡 井石面 豆谷里 金在信	翼元公派 충남 唐津郡 牛江面 成元里 金昌潤	株式會社 京仁電工社 代表理事 文來二洞 새마을金庫 理事會 民主正義黨 中央委員 金槓煥 (翼元公派) 서울 永登浦區 文來四洞 二三 電話 六三三 一七九八七	大韓藥師會 會長 經營學 博士 金明燮 電話 八三三 一七七二 一〇二 八四七 一五二二
--	--------------------------------	-------------	----------------------------	-------------------------------	---	---



로 내리지 않았다. 또 동경에 도착한 이 장용은 그 나름대로 하루라도 빨리 세조를 만나, 원종의 복위를 알리고, 출병을 마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경을 향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로 달렸다.

이러한 사실을 탐지한 최탄(京別抄) 등을 주이니 그 행위는 완전히 반란으로 변했다. 이에서 그치지 않고 최탄은 다시 육지로 나와서 서경유수(西京留守)를 추이고 용주(龍州)·영주(靈州)·철주(鐵州)·선주(宣州)·자주(慈州)의 수령과 서북방 여러성의 관리를 모두 추이고는 몽고의 관원 달라이(脫萊兒)를 찾아갔다.

「고려는 전국의 백성을 거두어 장차 만점(海島)으로 잠입하려 하기에, 여러성의 수령(守令)을 죽인 사실을 상국(上國)에 알릴 뿐입니다.」

고려에서는 원종(元宗)이 복위(復位)한 사실을 하루 속히 세조에게 알리고, 몽고 부대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장용(李穡)을 급파(急派)하였다. 그러나 이 장용의 일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상하여서 경(京)·평壤(平壤)에 도착했을 때, 북방에서 올라온 사건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林)·림(林)·원(元)·종(宗)을 폐위시켰다」는 말을 들은 서북면 병마사 영기관(西北面兵馬使營記官)인 최탄(崔坦)과 한신(韓信)이 반란을 모의(謀議)하고, 삼화현(三和縣)사(李延齡)과 정원도호(定遠都護)인 개문비(桂文庇)·연주(延州)사람 현효철(玄孝哲) 등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최탄은 소리 높여 외쳤다.

「여러분! 나라 안에는 한 하늘 밑에서 머리를 같이 하고 살지 못할 역적이 살아 있소. 그는 바로 삼별초란 조식의 힘을 믿고, 국권을 쥐고 흔들다가, 마침내 우리 임금까지 쫓아내고, 제 멋대로 임금을 앉힌 임연은 만고에 보지 못한 대역적이 아니겠소, 그러나 이 역적을 죽여 없앨 힘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밖에도 있었소. 우리는 그 힘을 죽여야 합니다. 모두 일의 남시다.」

이렇게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규합한 최탄과 한신 등은, 용장(龍將)·함중(咸從)·삼화(三和)·개문(開門)·원종(元宗)을 죽이고, 밤을 이용하여 하도(椶島)로 건너가서 그곳의 분사(分司)인 심원준(沈元準)·감창(監倉)·박수혁(朴守翹)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주이니 그 행위는 완전히 반란으로 변했다.

이에서 그치지 않고 최탄은 다시 육지로 나와서 서경유수(西京留守)를 추이고 용주(龍州)·영주(靈州)·철주(鐵州)·선주(宣州)·자주(慈州)의 수령과 서북방 여러성의 관리를 모두 추이고는 몽고의 관원 달라이(脫萊兒)를 찾아갔다.

「고려는 전국의 백성을 거두어 장차 만점(海島)으로 잠입하려 하기에, 여러성의 수령(守令)을 죽인 사실을 상국(上國)에 알릴 뿐입니다.」

최탄은 소리 높여 외쳤다. 「여러분! 나라 안에는 한 하늘 밑에서 머리를 같이 하고 살지 못할 역적이 살아 있소. 그는 바로 삼별초란 조식의 힘을 믿고, 국권을 쥐고 흔들다가, 마침내 우리 임금까지 쫓아내고, 제 멋대로 임금을 앉힌 임연은 만고에 보지 못한 대역적이 아니겠소, 그러나 이 역적을 죽여 없앨 힘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밖에도 있었소. 우리는 그 힘을 죽여야 합니다. 모두 일의 남시다.」

이렇게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규합한 최탄과 한신 등은, 용장(龍將)·함중(咸從)·삼화(三和)·개문(開門)·원종(元宗)을 죽이고, 밤을 이용하여 하도(椶島)로 건너가서 그곳의 분사(分司)인 심원준(沈元準)·감창(監倉)·박수혁(朴守翹)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주이니 그 행위는 완전히 반란으로 변했다.

이에서 그치지 않고 최탄은 다시 육지로 나와서 서경유수(西京留守)를 추이고 용주(龍州)·영주(靈州)·철주(鐵州)·선주(宣州)·자주(慈州)의 수령과 서북방 여러성의 관리를 모두 추이고는 몽고의 관원 달라이(脫萊兒)를 찾아갔다.

이렇게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규합한 최탄과 한신 등은, 용장(龍將)·함중(咸從)·삼화(三和)·개문(開門)·원종(元宗)을 죽이고, 밤을 이용하여 하도(椶島)로 건너가서 그곳의 분사(分司)인 심원준(沈元準)·감창(監倉)·박수혁(朴守翹)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주이니 그 행위는 완전히 반란으로 변했다.

이렇게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규합한 최탄과 한신 등은, 용장(龍將)·함중(咸從)·삼화(三和)·개문(開門)·원종(元宗)을 죽이고, 밤을 이용하여 하도(椶島)로 건너가서 그곳의 분사(分司)인 심원준(沈元準)·감창(監倉)·박수혁(朴守翹)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주이니 그 행위는 완전히 반란으로 변했다.

이렇게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규합한 최탄과 한신 등은, 용장(龍將)·함중(咸從)·삼화(三和)·개문(開門)·원종(元宗)을 죽이고, 밤을 이용하여 하도(椶島)로 건너가서 그곳의 분사(分司)인 심원준(沈元準)·감창(監倉)·박수혁(朴守翹)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주이니 그 행위는 완전히 반란으로 변했다.

電子部品生産業

이웅정밀

代表 金堂秀

서울: 九老區 加里峰洞 345 (수출산업공단 제3단지)

電話: 854-6798

提學公派

金泰龍

三陟市 月桂洞 七統 四班

提學公派

金相燮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南加佐洞 175-113